

## 『광주, 여성』\*

패널: 정경운 전남대 교수, 서사학

김 원\_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치학

사회: 권명아 동아대 교수, 국문학, 『문화/과학』 편집위원

일시: 2013년 1월 15일(화) 오후 7시-9시

장소: 후마니타스 책다방

권명아: 안녕하세요? 『문화/과학』 북클럽 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편안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회 북클럽은 『광주, 여성』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후마니타스에서 출간된 책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번에 제가 이 책을 추천 드린 관계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고 너무 진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언젠가 그람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제가 비평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문구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셰익스피어 같은 작품도 나오지 않고 더 이상 그런 작품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가가 어떤 비평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셰익스피어와 같은 작가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비평을 해야 한다고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 여성』, 후마니타스, 2012.

말하는 비평가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시대의 징후 또는 경향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작품들 혹은 ‘위대한 걸작’을 중심으로 한 비평이 아니라 경향적인 텍스트들을 비평하는 것”이야 말로 그람시가 말하는 비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 여성』의 성격도 그렇지만, 말하자면 이 시대의 혹은 이 달의 추천도서 같은 성격을 지닌 텍스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선정한 것은 선거 전이기도 했는데, 그 시점에서 광주, 특히 ‘광주’, ‘여성’이라는 젠더와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마침 그 시점에 이 책을 만나게 되어서 이 책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 구술 자료라든지, 우리가 광주나 5·18 서사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기본적인 것들이 공유된 바가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번 『문화/과학』 토론에서는 기본적인 전제로서 ‘구술텍스트의 정치적 독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논의에서 토론회를 시작해보자고 두 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로 제안을 드린 것은, 우리가 보통 1인 저자의 작품이라고 하는 저작과 구술텍스트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게다가 『광주, 여성』은 원래의 구술 채록본을 다시 발췌해서 편집한 본이라는 판본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이 텍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전제되어야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생각하셨겠지만 최근 영화 <26년>이라든지, 이와 비슷한 광주에 대한 다양한 서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왔고, 그런 맥락에서 『광주, 여성』이라는 텍스트를 우리가 어디에 위치시키고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논의들, 그 다음에 오늘 김원 선생님께서 토론문에서 구체적인 논의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논의로서 현재적 맥락에서 『광주, 여성』이란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전체적인 열개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걸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린 것

일 뿐이고 자유롭게 두 분 선생님들이나 참석해주신 분들이나 전체적인 순서를 염두에 두시고 하셔도 좋고, 또 그때그때 ‘이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것들을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소회로 논의를 열어볼까 생각하는데요, 저도 최근 <26년>과 <화려한 휴가>를 다시 보았습니다. 저는 5·18항쟁이 기념화, 혹은 의례화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5·18을 재현한 서사 중에 일종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했던 작품이 사실은 <스카우트>라는 영화였습니다. 대중적인 오락물처럼 나와 있는 영화이긴 하지만, <스카우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어린 이종범이 운동장에서 평화롭게 공을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화면이 점점 뒤로 빠지면서 탱크가 밀고오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른바 한 개인의 ‘생애’ 혹은 ‘일상’이라는 것 속에 ‘국가폭력이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는가’를 인상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작품을 보고 나서 획기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사실 그 직전에 <화려한 휴가>가 개봉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화려한 휴가>나 또는 임철우 선생님의 『봄날』에 대해서 ‘이건 좀 스테레오타입이 아닌가’란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화려한 휴가>를 보면서 그동안 5·18이나 4·3사건이나 국가폭력의 재현 혹은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싫증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뭐 더 할 게 있나?’ ‘뭔가 왜 참신한 게 없을까?’ ‘우리가 더 얘기할 게 있나?’ 이런 생각들을 저 스스로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시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광주, 여성』으로부터 논의를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여는 말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리해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운 선생님은 광주 항쟁의 서사화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연구 작업을 해오셨고, 『광주, 여성』의 1차 구술 채록의 편집자이셨습니다. 김원 선생님은 구술 연구 분야나 국가폭력과 기억의 문제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연구 작업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또 최근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이란 책을 출간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두 분이 꽤 많은 교류를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만난다고 하시니까 더욱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정경운 선생님께서 여는 말씀으로 1차 구술 채록을 하는 과정과 이렇게 책 형태로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 텍스트에 대한 선생님의 입장과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운: 반갑습니다. 사실 처음에 전화를 주셨을 때 안 하겠다고 거절을 했었어요. 사실은 아직도 불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야 하나’란 생각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김원 선생님과 제가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김원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이 저희 대학원 텍스트였는데 갑자기 옆에 앉아계시니 이제 생각이 납니다. (웃음)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구술생애사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선생님은 저를 알 수가 없었죠.

제 전공이 소설이론이어서 구술생애사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구술작업과 만난 것은 1988년부터였습니다. 당시 광주에 있던 현대사자료연구소에서 시작한 5·18 관련 구술작업이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주변 인들을 탐색해가며 몇몇 분들에게서 구술을 받았었죠. 이후 구술작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다시 기회를 만난 것이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한국사에서 대한민국 최후의 빨치산으로 기록되고 있는 정순덕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한국전쟁기에 먼저 입산한 남편을 찾으러 입산했다가 빨치산이 되었던 분이죠. 13년 간 지리산에서 빨치산 생활을 하다가 1963년에 체포당해서 장기수로 복역하던 중 1985년에 광복절 특사로 출감했습니다. 2004년에 사망하셨으니, 마지막 구술을 제가 받은 셈이 되었죠. 숙대 아시아여성연구소에서 출판한 『한국여성인물사 2』에 그 원고가 실려 있는데요, 그 분 구술생애를 받고나면서부터 비로소 ‘구술생애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 빨치산이 된 배경, 장기수로 출감, 이후의 보호관찰 생활,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결코 가볍지 않은 한 인간의 생애 전체가 그 며칠 동안 저에게 쏟아지는 것을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구술사가 제 방법론은 아니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2009년도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에서 돈 1,000만원을 들고 저한테 찾아 온 거예요 “1,000만원 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웃음) 저는 완전히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번 쫓았어요 “구술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문제는 1,000만원으로 어느 연구자도 구술생애 작업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불가능하죠. 조사원들 인건비가 나올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출판까지 했어야 했으니깐요. 그래서 역제안을 다시 했죠. 그 전년도에 제가 여성민우회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술생애사 방법론을 설명하고 주변에 마을 여성들을 인터뷰하게 하는 훈련을 시켰었거든요. 그 분들은 굉장히 평범한 시민들이죠. 그래서 “5·18 당시 다양한 시공간 안에 여성들이 있었을텐데, 평범한 광주 시민으로서의 여성이 역시 당시 평범한 시민으로 존재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열전처럼 계속 받아보기로 한 겁니다. 따라서 이 책은 전문가가 투입된 구술 결과물은 아닙니다. 현장 활동가들이 발로 뛰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제가 한 작업은 질문지를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주변을 탐색해서 각 계층별, 계급별, 연령별로 분할을 시켜서 27명을 모으고 난 뒤, 각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물론 큰 흐름은 있었지만) 질문지를 개별적으로 만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활동가 분들이 직접 나가 구술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류도 많았었습니다. 막상 채록 작업에 들어가고 정리를 하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연구자들 경우에 기본적으로 구술이라고 하는 것은 2차, 3차 구술을 통해서 계속 교차분석을 해나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잡아내고 다시 재질문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이 활동가 분들은 비전문가다보니까 질문지에만 충실해서 받든지 아니면 질문지조차도 소화하지 못하고 계속 인터뷰이한테 끌려 다니

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같이 평평 울다가 녹음기만 들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 시점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5·18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 부분만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엔 5·18 경험은 거의 없는 채 자신의 생애 이야기에만 몰두하고 계신 분이 있기도 했어요.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균일하지 않은 내용을 재정리하는 데 상당 부분 편집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작업이었죠. 이게 1차 편집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때문에 읽기 편하게는 재구성됐지만 구술의 본말인 자료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록 원본이 사실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죠.

그때 당시 1차 편집본을 천권을 뽑았는데 모두 비매품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책이 빨리 소진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구할 수 없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재원을 좀 더 구하고 해서 여기 후마니타스 사장님에게 거의 때를 쓰다시피 (제가 듣기로는) 해서 이것을 매품으로 (비매품 어느 정도) 다시 2차 편집을 했죠. 근데 저는 1차 편집만 했습니다. 1차 편집 때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차 편집은 아무래도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정우 선생님이 맡아주신 겁니다. 제가 재구성하느라 상당 부분 삭제시켰던, 굉장히 날 것으로서의 언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본보다 읽기는 까다롭지만, 그럼에도 훨씬 더 날 것 느낌은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명야: 이어서 김원 선생님께서 작성해주신 토론문을 보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 <26년>을 대학원생들과 함께 봤었는데요,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복잡한 심경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단상은 영화를 통해 5·18의 치유되지 못한 것이 ‘세대 간의 전승의 형태’로서 서사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26년>에 등장한 인물들이 현재 치유의 시간을 상실한 5·18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진지한 반성이나 혹은 치유의 노력이라는 것들을 결여한 한국사회를 보여주면서, 5·18의 흔적들을 지우고 축제화하려는 집단적인 2차적 가해를 이른바 ‘복수’라는 형식을 빌어서 무화시키려는 일종의 ‘제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편집된 구술 자료를 어떻게 얘기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했고요, ‘차라리 구술자료 원본이었다면 얘기하기가 간단하지 않을까’ ‘무언가를 얘기를 할 수 있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심경은 사실 5·18과 관련된 기록 작업들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지금은 시들해졌지만 5·18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또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닌 저 같은 세대에 있어서 5·18이 죽음, 죄의식, 부채, 시민군 등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현재 영화 <26년>을 보는 젊고 다른 체험의 결을 가진 개인들에게는 5·18이란 먼 시간적 거리가 과연 어떻게 다가올까라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논의를 돕기 위해서 먼저 구술자료 독해와 관련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텍스트를 보면서 들었던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술사는 ‘밑으로부터의 역사’, ‘공식적인 역사로부터 배제된 개인의 체험’을 현재의 기억에 근거해서 다시 불러오는 역사 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안에 있는 ‘사실적인 진실성’이나 ‘서사적 진실성’이라는 것이 구술사를 통해 의미 내지는 맥락에 따라 재구성되고 또 섞여서 기록이 되곤 합니다. 다만 구술 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새로운가?’보다는 ‘왜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식적인 역사 서사에서 배제된 개인인 여성 내지는 하위주체 등 구술은

사실 일관되지도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이게 자료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개인의 현재적인 정체성, 과거 체험에 대한 독특한 의미 부여, 지배담론과의 공조 같은 것들이 겹겹이 쌓인 자료가 ‘구술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술자들이 얘기한 기억이란 것들은 그 자체로서가 아닌 역사를 통해서, 역사에 의해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되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왜 그녀/그가 기억을 지금 여기로 불러내는가’, 또는 ‘불러낸 기억이 갖고 있는 의미 내지는 맥락이라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술자료를 보고 해석을 할 때, 『광주, 여성』의 경우에도 소제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이미 연구자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해서 단락화한 겁니다. 소제목을 단 것 자체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이 어떤 맥락인지 이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구술자료란 혼자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면접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 의도, 서사를 민감하게 분석하고 추론을 재구성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나타난 개인 생애의 전환점 내지 사건, 시간 등을 추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텍스트를 다 못 읽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주목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텍스트는 시작, 거리,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 다른 식으로 말해서 5·18이전 생애체험, 5·18 당시 체험 그리고 이후 자신의 정체성, 외상, 5·18에 대한 단락으로서 구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독자를 위한 구분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테마가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건·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5·18을 재구성한 것에 비해서 이 텍스트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여성으로서 생애사 내러티브, 그리고 5·18로 인한 외상의 생생한 언어로서의 표현, 그리고 치유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으로서 생애사 내러티브와 관련해서, 모두는 아니지만 공통되는 것은 ‘불행

의 서사'들, 예를 들어 시집살이 탈출, 생계, 가부장제, 못 배운 한恨, 기타 등이 몇몇 구술자들을 통해 '인형의 집', '여자의 일생', '팔자八字'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술자 여성의 자의식적인 의지도 텍스트 안에서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가 아니라 그가 구속되면 빈자리를 메운 것이다'와 같은 것들이 이러한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 분들이 나이도 다르고 5·18 이후의 생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지만 이들에게 5·18은 한편으로 '무서운 전쟁', '징그럽고 무거운 세상', 그리고 '파리처럼 죽었어요' 등 구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처참한 동시에 청춘과 인생을 변화시킨 생애사적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 변화, 그리고 공포와 무력감 등 어떤 복잡한 심리가 응축된 사건으로 현재 기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제일 주목해야 할 구술자들의 이야기는 5·18로 인한 '외상' 부분들, 이 책의 3부와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아마 책을 보시면 좌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분들에게 5·18에 대한 1차 외상보다 2차적인 외상이 더 치명적이고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널리 알려진 전옥주 씨의 간첩 낙인, 실어증, 우울증의 지속, 안정제 장기 복용, 호남 출신임을 숨기기 위한 '말을 바꿀 정도'의 부끄러움 등이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통이나 상처의 목소리는 5·18의 흔적이 이들의 내면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5·18이 치유되지 못하고 축제화-전시화되는 것에 대한 분노로 이 분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물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이 분들의 심리는 '아직도 5·18 그 시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느낌들도 또 동시에 들었습니다.

물론 5·18에 대한 피로감이 공존함에도 5·18은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는 치유가 아직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몇몇 분들의 이야기들은 앞서 말한 '치유의 시간'을 놓쳤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생애사

적인 지향'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책을 보고 든 생각들을 몇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생똥맞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왜 '5·18여성'이 아니라 '광주 여성'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판 제목은 '구술로 엮은 광주 여성의 삶과 5·18'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유추를 해보면 구술사들의 이야기가 5·18 당시로 국한되지 않는 깊이와 넓이를 지니고 있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5·18이라는 항쟁사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5·18전 후에 광주에서 여성으로서 삶을 살아온 주체들의 언어를 복원하고자 하는 맥락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시간 순에 따라 재구성된 것으로 뭔가 해석을 하려 한다면, 이 문제가 사실 저는 걸립니다. 물론 구술자료의 원본 파일이나 동영상은 보지 못한 상태 속에서 하는 얘기지만, 구술자가 특정한 순서나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체험의 무게일 수도 있고, 현재 기억으로서 자신의 생애를 재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도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정형화된 스토리텔링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독자를 위한 시간 순 배열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 구술자의 의도와 주된 서사를 살린다는 점에서 구술이 실제 진행된 순서를 '최대한' 살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자료에는 구술자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술자료는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헌자료와 구술자료가 다른 점이 이른바 '면담 상황'이라는 것이죠 즉 서로 의식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구술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면담자의 질문이나 이야기도 동시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위치는 묻고 답하는, 마치 "경찰서에 가서 너 뭐했니"라며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권력 관계, 혹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주도성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분의 이야기가 실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면담자가 누구였고 어떤 질문 속에서 광주 여성들이 자신의 생을 이야기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렸다면 구술 서사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는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문제인데요, 구술자, 특히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외상을 지니신 분들의 경우에는 고통이나 분노, 좌절, 공포 같은 것들이 쉽게 언어화되기도 어렵고, 설사 이야기되어도 우회적으로 이야기되거나 한숨, 눈물, 침묵 같은 비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은 면밀한 구술자료 검토를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먹이거나 한숨을 쉬는 부분들은 구술자와 면담자 사이 대화 상황 속에서 어떤 맥락에서 구술자가 고통을 받고 이야기를 이어가기 어려운지, 그 고통의 깊이와 결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라우마 내지는 외상을 가진 주체들에 대한 구술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고려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구술자료의 젠더적 시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책 뒤에 실린 좌담을 보면 정경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오는데요, “텍스트에서 젠더적 시각이란 것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발견하려는 과도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5·18의 근본적 이해를 놓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이 텍스트가 젠더적 시각에서만 독해되거나 해석될 성격은 아니라고 보지만, 5·18과 그 이후 담론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남성 주체에 비해서 잔여적 범주로 여겨졌거나 혹은 그것을 강제한 운동 담론이나 지식 체계 등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구술자들의 직업·사회적 위치도 다르고 5·18 이후의 체험도 굉장히 다른데, 이 분들이 5·18과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5·18 전후체험을 현재 어떻게 상이하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문제들도 좀 더 세밀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로 이야기드릴 문제는, 여성의 서사와 언어가 그 자체로 지배적인 담론과 ‘다를 것’ 혹은 ‘대안적일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에 대해선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구술자들의 ‘날 것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고통·외상·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모성적인 것들 혹은 지배적인 해석과 담론과의 ‘겹침’도 역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래, 이 사람들이 지배적 담론에 침해됐어”라고 한 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서사의 겹침이 ‘왜’ 그리고 ‘어떠한 역사-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적 의미와 관련된 것은 어떤 ‘비가시적 존재’들, 녀마주이, 매매춘 여성, 부랑자, 90년대 이후 밥풀때기 등의 존재했으나 비가시적인 역사적인 연속성을 지니는 패자들의 기억을 어떻게 현재화시키는가에 있어서도 5·18의 체험이라는 것들은 중요한 결절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치유의 첫걸음’이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알기로 광주에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5·18을 국가 담론 내지 공식 담론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한편 개인의 잃어버린 ‘치유의 시간’을 어떻게 되찾아야 할 것인가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즉 텍스트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두려움, 무력감, 억울함, 공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남아 있는 저의 소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와 외상을 인지하고 이를 넘어설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구술사의 실천적인 이른바 연민이 아니라 구술자와의 공감(empathy)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광주, 여성』 텍스트는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다른 의미’나 ‘온전하게’ 만드는 보완적인 텍스트라기보다는 5·18을 체험한 여성들의 날 것의 언어·체험 서사를 통해 5·18이 80년 5월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 생애 체험의

반영인 동시에 여전히 이를 잊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상처 받은 여성들의 ‘치유 과정’임을 드러내는 텍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명아: 요점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실까요, 곧바로 논의를 이어갈까요?

정경운: 이번 2차 편집본 책 제목이 ‘광주, 여성’입니다. 왜 5·18을 앞세우지 않고 광주 여성의 삶이란 단어가 먼저 나왔을까. 이 대목은 그동안 5·18과 관련해서 진행되어온 구술작업의 문제를 드러내는 지점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5·18 구술은 대부분 관련 당사자들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술 내용 또한 5·18이란 사건 자체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사건의 진실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건 중심에 매몰되다보니까 5·18이 사건 이상의 어떤 의미로도 확장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맥락에서 급작스럽게 닥친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얼마만큼 흔들어놨으며, 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죠. 모든 게 다 사건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개인 삶의 맥락 속에서 5·18의 영향이라든가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여성』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나에게 그냥 와버렸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나간 이후에 내 삶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다’ 라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닫고 시작한 거예요. 정말 평범한 시민이었을망정, 옆에서 돌 한번 안 던지고 구경꾼으로 남아 있었을망정, 5·18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그게 궁금했었죠. 이런 측면에서 생애사를 받기로 한 거였습니다. 생애사 안에서 5·18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풀자는 측면에서 5·18을 직접 내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만약에 5·18을 직접적으로 내세우면서 어머니들에게 다가갔을 때, 과연 누가 얼마만큼 구술에 응해줬을까 의문이 들어요 저희들이 어머니들을 섭외할 때도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 이야기 듣고 싶어요” 이렇게 섭외했거든요. 아직도 직접적으로 5·18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27명에게서 구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명의 내용만 책에 실린 이유도 바로 이런 사실에 일부 원인이 있습니다. 구술을 다 한 뒤에도 출판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번 책에 실리지 않은 자료 중에 정말 욕심나는 구술 내용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북간도까지 이주했다가 해방 후, 다시 귀국해서 한국전쟁부터 5·18까지 모두 겪은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한국 근대사를 한 몸에 다 안고 있는 분이더라구요. 북간도 생활부터 시작해서 광주까지 내려와서 시집을 살다가 풍비박산난 집안을 할머니 혼자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자식 키워 5·18도 만나고 거기서 주먹밥도 해주고 그런 삶을 90년을 살아 오셨어요. 그 할머니에게서 7시간 정도 구술을 받았었는데요, 다음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한 거 같어. 우리 자식한테 한 소리 들었어. 그거 내지 말어.”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구술보고서에도 책에도 실리지 못한 채 제가 자료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안에서도 5·18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입을 열게 됨으로써 혹여 내 자식한테 피해가 갈까봐 염려하게 되는, 그런 상태 말이에요. 어쨌든 어머니들의 ‘삶 전체’를 들여보겠다고 생각한 덕분에 그나마 구술받기가 유연할 수 있었죠.

물론 이 책 안에도 5·18 관련 당사자들이 몇 분 계세요. 이 분들의 특징은 인터뷰의 질문과는 상관없이 앞뒤 다 제치고 5·18부터 바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술작업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된 분들이라, 자신들이 경험했던 사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줄도 알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

안에 19분의 구술 내용이 들어 있지만, 관련 당사자였던 분들과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던 분들 사이에 상당한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의 구술은 5·18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 생애에서 유독 그 당시의 서사시간이 길게 확장되어 있죠. 자신 삶의 모든 맥락들이 5·18을 중심으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평범한 여성이었던 분들은 유년시절, 시집살이, 고통스러웠던 삶을 이끌어온 과정, 자식들 얘기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을 이해하고 읽어보시면 깨알 같은 재미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삶의 경로에 따라 튀어나오는 언어도 다르고요. 평범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려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구술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을 보면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닳아 있습니다. 그동안 5·18을 해석해내는 공적 담화에 익숙해지신 분들이라, 말하는 방식이나 의미 부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이게 생애사가 주는 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원 선생님이 제기하신 두 번째, 세 번째 부분들은 아무래도 연구자 시각과 관련된 듯싶은데요. 연구자를 위해서는 사실은 구술자료집 원본 형태로 나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연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독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비언어적 표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채록을 하고 정리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입니다. 너무나 긴 침묵, 한숨, 눈물 등이 채록본에는 다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책으로 편집하면서 상당 부분 삭제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머니들의 일상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젠더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구술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여성성에 관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욕심도 조금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술을 진행하다보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딱 한 가지, 여성의 보편적인 삶의 맥락들이 다가오더라고요. 딸이라는 이유

로 혹은 가난 때문에 배움이 끊어졌던 유년, 가난한 시집살이, 가슴을 치는 자식 문제 등등. 징글징글할 만큼 고생스런 삶을 견뎌왔던 어머니들에게는, 마찬가지로 고통스런 세계를 정직하게 대면할 줄 아는 감수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죠. 2차본 편집을 맡은 이정우 선생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이 책의 편집자 말에 쓰인 것처럼, 그 시작도 끝도 이해할 수 없는 날벼락 같은 5·18 기간 동안, 왜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던 이들이 아무런 머뭇거림 없이 주먹밥을 만들고, 상처 입은 시민들을 치료하고, 시신을 수습했을까. 그런 마음, 그 힘, 그 판단은 어디서 나왔을까. 쫓기는 시위대가 왜 내 자식처럼 보였을까. 왜 이웃사람의 안부가 그토록 걱정됐을까. 왜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남의 목숨을 살리려 했을까. 이정우 선생은 이런 질문에 ‘삶’이란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5·18의 시간에 어머니들이 보여준 행위는 그 이전에 그들이 겪어온 삶에서 이미 예비된 것이었다고요. “정직하게 얻은 밥,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온 이웃,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겨우 보존한 목숨 같은 것들이 이전 삶의 요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에게는 5·18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광주 바깥에서 숨죽이며 광주 소식을 듣고 있어야 했던 자들, 광주 안에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시위에 가담하지 못했던 자들, 그리고 27일 밤 도청 바깥에 있었던 자들, 이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부채의식을 어머니들에게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내가 왜 27일 날 거기서 왜 나왔는지 몰라.” “거기서 죽은 아이가 눈에 선해.”와 같은 마음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어머니들에게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아래 세대인 저희들한테도 부채의식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니 부채의식이란 지리멸렬한 지식인들, 혹은 어느 정도 학습을 받으면서 역사의식을 키웠다고 하는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저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들한테는 그조차도 없는 거죠. 왜? 그게 그냥 삶이었었으니까. 젠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른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김원: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권명야: 자유롭게 질의 및 토론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선생님께서 논의해주신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4·3항쟁 관련 연구자 분들이 구술 채록 관련해서 논쟁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논쟁의 핵심 내용은 본래 제주말로 채록이 된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바꿔서 낼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표준어로 바꿔서 내기로 했다고 전해들었는데, 이후에 뒷풀이 자리에서 제주도 말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신 분이 화를 내시면서 “그건 정말 아까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해서 제주도 말로 된 채록본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여쭙보니, 채록된 작업 중의 일부를 동영상으로 4·3평화기념관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영상 자료를 보면 특이한 게 표준어로 자막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과연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것의 의미는 지역 말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사이의 차이들도 있겠습니다. 전달되는 낙차가 너무나 크다고 할까요.

또한 김원 선생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말로 표현되지 않는 자기의 심경, 울음 등이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없음, 전달될 수 없는 그 낙차들, 이것들은 사실 지역적인 차이에서도 기인한다고 봅니다. 제주도말이 단적인 예입니다. 거의 독해가 안 되니까요. 자막이 없으면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고 연배가 있는 분들의 말은 정말로 거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폭력의 경험의 너무나 큰 거리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단지 국가폭력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도 포함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학교 때문에 부산에서 외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어 선거(대선) 시 정세분석이라든지 현실분석에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것이 실제적인 투표율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역 주민이라고 말하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사람들이 지역에 대해 하는 진단을 듣고 있으면 일종의 모욕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더라구요. 지난 대선 때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른바 전문가들의 정세분석, 진보 논객들의 논의를 보면서 ‘뭔가 여기에는 삶이나 현장이라는 게 부재하구나’ 혹은 ‘공허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클럽의 이번 주제가 기왕의 이른바 진보적 담론 분석 방식과는 다소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문화/과학』의 색깔을 볼 때 저는 이런 문제의식들을 서로 한번 접촉시켜보고 싶었어요. 저희 편집회의 때에도 에스노그래피를 더 많이 해보자는 논의들도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 따라 우리가 흔히 행하는 사회분석, 현실분석, 정세분석에서 벗어나 정말 ‘삶’이나 ‘생애’라는 면에서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 것인가’와 같은 고민들이 연구의 맥락과는 별개로 ‘지금’, ‘현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접목시켜보고 싶은 지점이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런 접목이 참 어려운 게 한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같이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기 『문화/과학』 편집위원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이와 같은 논의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편안하게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위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귀하게 참여해주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저처럼 자기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연: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 정치·현대사의 억압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이른바 스피박이 얘기하는 하위 주체들 중에서 정치·역사적 주체가 아닌 문화적 주체에 대한 에스노그래피를 96년부터 해왔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 하위문화에 대한 에스노그래피를 10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 계

기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모범생이라는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변신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순진했는지 현장에서 10대에게 들었던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질문은 10대는 대부분 어떻게 노는지에 대한 것이었고요 정말 대단하고 놀랍고 충격적인 고백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 약간의 영웅담 내지는 꾸며내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게 ‘무조건 다 진실은 아니겠구나’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고민은 ‘구술사를 채록하는 나는 누구인가’란 것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겠죠 본인의 의견이나 느낌은 전혀 넣지 않고 그대로 담은 채 완전히 전달만 해주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나름대로 해석해서 재구성하는 사람, 이렇게요 저는 결과적으로 후자를 택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내가 현장에서 학생들과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하고 해석해보자는 게 저의 나름대로의 관점이었거든요 책에 나오는 청소년과 관련된 하위문화 관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상당히 많이 재구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을 왜곡했다거나 없는 걸 있는 걸로 쓴 적은 없지만요 그런 점에서 저 같은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정경운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경운: 연구자들만 생각하면 그다지 고민할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상황이나 인터뷰이의 심리상태, 몸짓, 사투리 표현 등 그대로 다 살려서 자료집 형태로 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주, 여성』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시다. 다만 책 분량의 문제나 각 구술자 간의 서사흐름을 맞추기 위해 상당 부분 편집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술자료의 양이 A4용지로 30페이지가 넘는 분들도 계셨고, 12페이지에 불과한 분도 계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량이 많은 분들은 내용을 쳐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5·18부분은 많이 살려 놓으려고 했습니다만, 양을 줄이기 위해 다른 생애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손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날아간 게 사실이죠.

권명야: 김원 선생님 말씀을 추가로 듣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원: 구술작업에서 나온 녹취문은, 있는 것을 그대로 푼 것이 아니라 단락을 나누고 특정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물론 아무 것도 나누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연구자 손을 통해 일정 정도 다듬어지고 그 안에서 문단이 나뉘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부여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동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전면적으로는 아니지만 녹취문 자체라는 것들이 특정한 의미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구성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연구자의 해석에 의해서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동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이것을 왜 하느냐’라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광주에서 살아온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었던 광주의 진실을 이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한 여성의 생애 구술사를 다루는 게 목적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 그것을 실제로 녹취하고 편집하신 정경운 선생님 말씀도 듣고 싶고요. 이 책을 읽으신 독자로서 김원 선생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위문화를 에스노그라피했을 때 특별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목적이라고 하는 건 연구자라고 하는 제가 현실의 트레이닝을 받고 싶어서였어요. ‘소위 대중문화 비평을 한다는 사람이 당시 대중문화의 주역이었던 10대를 몰라서 되겠는가’라는 이유였죠. 이후에 목적이 변경되긴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한국사회의 문제들이 거의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쪽방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면 더더욱 말이죠. 덕분에 ‘이걸 내가 왜 하지’라는 관점에서 벗어나긴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실제로 구술작업을 진행하셨던 정경운 선생님이 이것을 하

시게 된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

정경운: 일단 구술작업을 요청했던 광주전남여성단체가 돈이 없어서 제가 했어요 (웃음) 저는 정말 부담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활동가들한테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 작업이 부담됐다면 연구자 집단을 데리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저는 활동가들에게 정말 부담 없이, 평범한 여성 시민들에게서 평범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질문지 목록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생애사를 받는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중간에 다른 점이 있다면 5·18이라는 특정 사건이 들어간 것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5·18 이후의 삶과 관련해서 5·18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넣었습니다. 현재 광주 시민 참여가 별로 없는 5·18 축제라든지, 현재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정치인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등등. 이런 몇 가지 질문들 외에는 실제로 마지막까지 여성 생애사 중심의 전형적인 질문들입니다. 마지막을 ‘여성으로서 어머니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은 생애 동안 뭘 하고 싶으세요?’와 같은 질문으로 맺는 거죠.

그렇게 아주 부담 없이 쓴 건데, 채록을 해놓고 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구술 자료에서는 읽을 수가 없었던 언어들, 계속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 좋았죠. 고통스러워도 그런 것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언어들, 제가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게 의미라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원: 독후감을 얘기하자면,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편해지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소위 광주의 해석 과정 속에서 당사자주의(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경운: 실제로 광주에서는 당사자주의라고 불러요.

김원: 당사자주의 때문에 배제되거나 5·18에 대한 체험 내지 기억 자체가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고통 내지 분노, 부채의식이란 형태로 주체들에게 전이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집단에게 있어서도 부채의식으로 작용하겠죠. 이런 의식도 개인에게 있어서 생애의 한 일부분이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 자신의 사고 내지 정체성의 일정한 변화를 동반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책을 덮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떻게 이분들이 편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였습니다. 5·18, 4·3사건, 종군위안부 등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고 외상을 품고 사는 분들은 치유되어야 합니다. 좌담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술사의 궁극적인 실천성은 분노와 약탈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치유의 첫걸음을 밟는 것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저는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란 것들을 들쭉서 드러낸다고 해서 바로 치유가 될 것이냐가 그것이지요. 오히려 외상 자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지는 않을까에 대한 의문 내지 현실적인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운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은 건,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5·18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치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구술사 연구 대상이 외상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지만, 구술사의 본래적인 중요한 연구대상들은 그런 분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신 선생님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여쭙보고 싶습니다.

정경운: 이 책과 관련된 구술작업 이외에도 5·18과 관련된 몇몇 분들에게 생애사 구술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요. 가끔 인터뷰하는 데 동반하는 지인들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이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닌데, 왜 그 얘기는 안 물어봐?” 실제로 때로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단순한 기억 착오라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사실 대부분 이런 진술들은 의도적으로 기억을 왜곡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많죠. 자신의 도덕성이나 지극히 사적인 내용에 그 사실이 걸려 있을 때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경우엔 사실 확인을 위한 2차 질문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밝혀내려고 무리하게 접근했다가는 구술 자체가 정지해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더 큰 문제는 한 개인이 살아왔던 생애 전체를 무너뜨리는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차마 말하지 못하고 꼭꼭 숨겨왔던 내밀한 부분까지 들춰낸다는 것은 구술자에게도 존재론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듣고 난 뒤 사후 심리상태를 같이 감당해줘야 하는 인터뷰어에게도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좀 슬프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정도까지 감당할 능력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구술작업은 1차적으로는, 구술자들이 말할 수 있는 것들만이라도 속 시원하게 털어내게끔 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그 자체가 치유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 사실 확인 작업은 다른 구술들과의 교차분석을 통해 밝혀낼 연구자의 몫이라는 생각도 있고요. 구술자들 대부분이 구술을 끝낸 후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속이 시원해진 것 같네.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사실 어떻게 몇 시간 말하는 것으로 30년 동안 묵혀왔던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에게는 적어도 연구자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울분에 찬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사적 담화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울분이 풀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에 반해 연구자 앞에서 행하는 구술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발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인지, 어느 정도는 마음이 풀어지는 경험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비단 5·18뿐이겠습니까. 한국전쟁, 제주 4·3, 4·19와 군사혁명, 80

년 이후 민주화운동, 노동과 농민운동 등등과 관련해서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한국사회가 너무나 불행한 것이, 근현대사 속에 국가폭력을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을 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 책임을 최초로 물은 것이 바로 5·18인데요, 5·18 또한 물리적 보상 문제만 해결하는 데 30년이 걸렸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정신적인 상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언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물리적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해도 간단치가 않았었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이 지나면서 마음상태는 굵을 대로 굵은 상태가 된 거죠. 작년 10월에 광주에 <트라우마 센터>가 개소되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랄 수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트라우마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정혜신 박사님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자로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명야: 제가 구술 작업하시는 분들 만나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요 참 말씀을 잘 하세요. (웃음) 플로어에서도 충분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권경우: 어제인가, 뉴스를 봤는데 고려대 앞에 대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벌어진 일이에요. 인터넷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다가 한 사람은 5·18을 광주폭동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럼 우리 직접 만나서 맞짱을 뜨자고 했나 봐요. 전문용어로 현 피, 즉 ‘플레이어 킬’이라고 해서 게임하다 만나서 직접 공격하는 걸 얘기하는데, 다행히 폭동이라고 주장했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안 나왔어요. 우연히 그 두 사람이 같은 고려대생이라고 해서 뉴스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요즘 제 고민은 뭐냐면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26년>, <남영동 1985>와 같은 영화들이 등장하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걸로 가능한가라는 거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번 대선에서 1,470

만 명이라는 야당의 표가 있었는데 야당에 표를 던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과 반대 당에 표를 던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 사이의 괴리가 지금 너무 혼돈이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간극을 다른 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가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김원 선생님의 토론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구술사가 어찌면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작업이 아닐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역사라든지 정치와 같은 딱딱하고 추상화된 영역을 이야기할 때, 특히 과거의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는 방식은 상처를 덮고 회피하는 식이었죠 당사자들에게 대한 조의 표현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박제화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틈새에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구술사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의 방식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서사화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해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된 방식은 고정된 이야기만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야.” 혹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26년>을 보는 관객들의 반응은 대부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 사람들은 “영화 왜 이렇게 못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건네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30년도 지난, 이미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마당에 이제 와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등장하는가. 이게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상처만 입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들먹거리는 거죠 “그때 폭동이었어.”라는 식으로 누군가 말했을 때 그것도 큰 상처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치유의 방식을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처는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4·3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끊임없이.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명야: 저는 부산에서 <26년>을 봤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말 다양한 연령으로 꼭 왔어요 그런데 평소 영화를 볼 때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는데, 극장이 계속 술렁거리는 겁니다. 중요한 시점이 있으면 일부러 휘방을 놓는다든지 “뭘야?” 이렇게 말한다든지 자꾸 일어났다 나갔다 한다든지요. 극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알바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것이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극장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저는 징후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부산이 워낙 보수적인 지역이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광주라는 것이 일종의 동일화 메커니즘이나 권력의 극장성이라는 것을 깨버리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현실에 존재하는 갈등의 대립이라는 걸 분출시켜버리는, 그게 아까 정경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역설적으로 한국에 광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 정도로 미치지 않고 온다는 의미의 상징성 같은 것들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논의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을 주실 게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정경운: 저는 <26년>을 아직 안 봤고요, <화려한 휴가>도 제일 끝물에 봤습니다. <화려한 휴가>는 광주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 또한 울컥 울컥하는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네요 <26년>의 경우에는 광주에서 특별한 담론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엔 레미제라블 이야기만 하던데요 (웃음)

좀 다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대선 끝난 뒤에 광주가 좀 바빠졌습니다. 손님맞

이 하느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웃음) 아시다시피 대선 결과가 발표된 뒤, 국민의 48%는 멘탈 붕괴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광주로 사람들이 엄청 찾아오는 거예요. (웃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왔대요. “어떻게 투표율이 80%가 넘을 수가 있냐.” “그나마 여기라도 버티워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너털너털해진 상태로 위로 좀 해달라고 오는 거죠. (웃음)

실오라기도 잡듯이, 적어도 미치기 직전에 좌표를 찾듯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 역할을 끊임없이 광주가 그나마 해주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정말 징글징글하게 한국사회가 끊임없이 위로의 근거를 타인, 혹은 다른 세상에서 찾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위로의 근거는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자기반성과 점검을 해야 하는데, 왜 끊임없이 광주에다 대고 위로를 구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질문자 1: 책을 낼 때에는 독자들을 상정했던 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광주가 하나의 상징 같은, 맞닿아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30년도 전에 일어난 추상적인 사건이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인터넷 채팅 사건처럼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을 편집을 하시거나 출판을 준비하시면서 청년 세대들한테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권명야: 정경운 선생님은 <26년>을 안 보셨다고 하니까, 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도 학생들이랑 같이 봤는데요. <26년>과 <화려한 휴가>를 비교해보면 <26년>은 사실 80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하나도 나오지 않거든요. 반대로 <화려한 휴가>는 온통 그때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의 문학이나 여러 재현의 방식들은 그 언저리를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광주, 여성』은 세상에 내놓아진 이야기라는 차원에

서 단지 구술 텍스트로서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 대한 재현 내러티브의 차원에서 독특성을 지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 여성』은 구술자들이 각자 겪었던 고통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독자들이 구술이라고 생각하든 인터뷰라고 생각하든 이 이야기를 전달 받는 사람들에게 좀 다른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판본이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는 광주에 대한 내러티브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지금 플로어에서 질문하시는 것들도 이 내러티브들이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의미로서’ 전달되는 게 필요하다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정경운: 청년 세대가 사실 답답합니다. 사회적인 것들을 철저히 개인화시켜버리고, 개인의 문제로만 치환시켜버리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미래와 관련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는 20대에게 광주가 중요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및 5·18이 이후 세대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승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사실 광주 안에서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절한 텍스트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있어도 그것은 사실관계 중심으로만 전달하는 데 급급하죠. 반대로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 경우는 굉장히 좋은 텍스트들이 실제로 있어서 아이들이 푹 빠져서 보는 경우는 있지만, 5·18텍스트는 그런 게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당시에 체험을 하셨던 분들이 마치 사람 도서관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책에서 아무리 배운다 한들 그건 한낱 언어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 제가 80년대에 대학에 들어와 강의를 듣는데, 간혹 4·19 얘기만 나오면 울분을 토로하는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대부분 40대 교수들이었는데, 그 분들은 20대 때 4·19를 직접 경험한 분들이었죠. 그런데 정작 저희들은 멍한 상태로 ‘왜 저렇게 흥분을 하나’ 하면서 바라보고만 있었죠. 저희 세대에게 4·19란 역사책 거의 마지막 부

분에 있는 한 단어에 불과했던 거예요. 물론 역사 선생님들도 현대사는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았고요. ‘태종태세문단세’만 열심히 외웠지.

그런데 똑같은 경험을 제가 90년대에 했어요. 학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매학기 5·18을 토론 주제로 제시했는데, 90년대 중후반을 넘어서면서부터 토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 학생들에게는 5·18이 역사책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단순한 사건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텍스트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뭔가를 전달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추체험 세대들한테 구술사 자료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는 역사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 사람의 생애를 읽기 시작하면 빨려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텍스트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명원: 저도 방금하신 것 관련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4·3이라든가 5·18이라든가 국가폭력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백하거나 발언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2차 폭력 비슷한 느낌들을 초래해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숨어 있기 때문에 요지부동이고요. 구술이나 고백에서 보면 진실을 증언하기도 하는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고백이나 대화라고 하는 장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게 한다’는 데에서 나타나는 고통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저희 친가가 호남인데요, 명절 때가 되면 간혹 광주와 같은 역사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신경질적인 반응이죠. “전두환 죽일놈”이라는 한 마디로 지나가는 셈인데, 그런 문제가 징후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광주 쪽에 일 년에 한두 번씩 내려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사실은 굉장히 의무감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저는 서울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호남 사람도 아니고 서울 사람도 아닌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묘한 감수성 속에서 지냈는데, 광주에 내려가면 “너는 광주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또 서울에서 살다보면 부친의 고향이 그러다보니까 “너는 호남 사람 아니냐”라는 식의 굉장히 미묘한 태도가 있어요.

아까 영화 <26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와 같이 지내는 장모님이 경상도 김해 분이세요. 물론 영호남 간의 미묘한 정치적 갈등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러다보니 미묘한 심리적인 불편함들이 매일 매일 밥상에서 벌어진다 말이지요. 장모님이 어느 날 <26년>을 보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서방 그 영화 보지 말게.”였어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시끄러워. 사람을 그렇게 총으로 쏘 죽이는데 참 볼 영화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한다는 건데, 전 트라우마라는 걸 치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못할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어떤 고립감을 느껴서 그야말로 함몰되는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인데,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 제거라고 하는 것은 설사 가해자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서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참회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발생한 트라우마는 해결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완화시키고 약화시켜 하나의 성찰의 대상으로서 의식의 표면으로 상황을 상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트라우마에 대해선 이 정도 고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국 기억을 계승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우리 국가 교육 체제 안에서 광주라고 하는 문제가 실제로 교과과정 안에서 제대로 반영되기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반영돼도 일부일 거라 봅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여름에 오키나와에 가서 인권, 평화 등을 일주일동안 취재

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자주교과서를 만들더라고요. 오키나와의 현안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나 오키나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 공식교과서와 대비되는 자주교과서를 만들어서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한 후 오키나와 역사를 배우는 거죠. 물론 오키나와 사람들도 오키나와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오키나와 역사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자주교과서를 통해서 오키나와 역사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공표하고, 오키나와 현립 평화 박물관, 역사관 등과 같은 기반 시설들을 통해 역사를 교육합니다. 역사관의 경우에는 큐레이터들이나 학예사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학년 단위별, 주민별, 연령별로 일종의 평화 가이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오키나와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키나와의 기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주 4·3, 광주 5·18과 같은 경우도 오키나와 전쟁 이후의 참사, 즉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 체제나 검인정 공식 교과서 말고 그야말로 지역적 특색에 맞는 자주교과서를 만드는 시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체험 세대에게는 중요한 문제인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정경운: 현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대상의 교재가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5·18의 핵심 정신을 보여줄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선 별로 천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상무대 영창에 넣어 놓고 주먹밥 하나씩 나눠주는 식의 체험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자주교과서처럼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때란 생각이 듭니다.

이명원: 제가 문학을 하다보니까 광주 출신 문인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활동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젊은 후배 세대들이 하는 얘기는 다음과 같아요. “광주라는 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폭력적인 곳이다.”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새로운 미학적 관점을 펼치면 선배들이 완전히 밟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공간 안에서 새로운 작품을 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선배 세대들이 이런 말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 사람 특유의 그것일 수도 있는데, “야 너는 어떻게 그래도 광주 출신인데 너가 쓰고 있는 시는 완전 미래파냐?” 선배 세대들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후배 세대들은 미학적 반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망 오듯이 서울로 올라오는 셈인 거죠. 이러한 지점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비극도 있겠지만 굉장히 촘촘하게 많은 부분에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들을 제약하는 것도 있는 거죠.

정경운: 맞는 말씀이에요. 비교적 새로운 변화에 민감한 수도권을 제외하곤 광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 상황이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역들이 지극히 보수적이면서 새로운 상상력과 실험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죠.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가 예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는 있지만, 미학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예술실험이 일어난 적이 없죠. 그 예향이라는 단어는 주로 전통과 관련되어 소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에서 저처럼 중간세대의 역할이 중요한 듯합니다. 어차피 저희 세대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 건 오히려 20-30대들에게 기대를 걸어야죠. 저희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가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윗세대의 문화권력과 단절시켜 주는 역할 같습니다. 젊은 세대의 에너지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저희 세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말예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문화권력이 되겠죠. 그걸 포기해야 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래야만 젊은 세대의 실험장이 그만큼 넓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권명야: 이어서 자연스럽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 선생님이 다 얘기해주셨는데, 오늘 선생님께 새로운 신조어를 많이 들어서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저도 현대사를 전공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뉴라이트 등 입론들이 본격화되며 현대사 전쟁이란 것이 좀 더 분명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한편 정통화한 운동서사들이 자신의 기존 서사 자체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그 주변부에 있는 요소 내지 부차적이라고 간주하는 주체·서사 자체 들을 배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둘이 동시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상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만이 아니라, 역사의 해석 내지 역사 교육 방향이 오히려 지금보다 나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들어요. 80년 광주를 포함한 현대사는 연구자로서 새로운 역사적 사실 내지 주체를 발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과거 현대사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는 세대 내지는 개인 혹은 집단을 전유하기 위한 진영 간의 좀 더 노골적이고 강화된 형태의 갈등 내지 투쟁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사나 교과서 논쟁 자체를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경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0년 당시 체험 자체를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방식 내지 체제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광주, 여성』 내지 이와 유사한 작업이 대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매우 낫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는 대학원에도 한국(학)을 배우러 온 유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에 관해 아는 건 ‘새마을운동’, ‘이승만’ 정도인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교과서를 놓고 5·18이 어떻게 부마항쟁이 어떻게 이야기해도 피부로 잘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큐라든지 <화려한 휴가> 같은 영화를 보여주면 더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의 분노,

참혹함, 비참, 또 동시에 여전히 광주가 왜 현재화돼서 트라우마로서 잔재되어 있는가를 피부로 자기화시킬 수 있는 텍스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트라우마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외상을 지닌 개인이 자기 고백을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트라우마가 사라질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혹은 구술사를 하는 사람 들은 적어도 트라우마로 인한 침묵을 밝히려는 것들, 동시에 침묵하는 타자들이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망각하는 것들도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침묵을 드러내려는 노력, 어쩔 수 없는 침묵이란 존재, 이 양자 사이의 긴장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침묵을 드러내려는 노력이란 것도 멈춰선 안 되겠지만 말이죠.

권명야: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질문자 2: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질문을 망설였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탈북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술작업을 하시면서 한국 전쟁 때 죽음을 가까이 겪으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5·18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인식의 차이점들을 느끼신 게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정경운: 한국전쟁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요? 특별하게 차이를 민감하게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 2: 북간도 분의 경우는요?

정경운: 그 분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쟁, 5·18도 다 경험을 하신 분

이죠. 그런데 제가 민감하게 느끼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그 분들은 그런 커다란 사건이 자신의 삶을 왜곡시키고 파편화시켰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이 나를 왜곡시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누가 미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반면에 유난히 사고하고 되짚고 하는 인간들, ‘이게 왜 나의 발목을 잡고 있지’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부채의식이라는 비생산적인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이게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해석하려 하고 의미부여를 하려 하잖아요. 거대한, 멋있는 단어로 정리하려고도 하고요. 하지만 어머니들은 절대로 그런 언어를 쓰지 않아요.

권명야: 맨 뒤에 계신 분께서 무언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던데요.

『광주, 여성』 편집자: 정경운 선생님께서 1차 편집본을 정말 가독성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2차 편집본을 하면서 1차 편집본보다 더 못 나오지 않을까 계속 조마조마했었고, 어떻게 하면 더 빛을 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정경운: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권명야: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보통 1인 저자의 책을 다루는 북클럽의 컨셉에서는 소화하기 어려운 텍스트였는데 두 분 선생님들께서 워낙 다각도에서 논의를 해주셔서 『문화/과학』 입장에서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